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의 농촌사회 양극화 분석

박대식* 마상진**

Keywords

농촌사회(rural society),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양극화(bipolariz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bipolarization of the Korean rural socie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For this purpose, the study carried out a statistical data reanalysis, a field survey, in-depth interviews, and expert reviews. The statistical data included the National Social Statistics Survey and the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The field survey was conducted among 500 rural residents, asking them about their awareness of the bipolarization of the rural society in terms of income, employment, education, health, resid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findings obtained from the survey and interviews as well as the statistical data,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the Korean rural community is bipolariz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 bipolarization status has been intensified as time has passed; the rural community bipolarization is different according to rural region, a relatively suburban region having a high bipolarization rather than a plain region or a mountainous region; the rural community bipolarization is mainly caused by income or employment, but also education, health, residence, and social participation.

차례

- | | |
|--------------|-----------------|
| 1. 서론 | 3. 농촌사회의 양극화 분석 |
| 2. 양극화 관련 이론 | 4. 결론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1. 서론

1.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최근 양극화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김홍중 외, 2005). 사회의 양극화란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으로(전병유 등 2006; Deutsch 1971; Esteban & Ray 1994), 소득 양극화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심화·확대되고 있다. 최근 양극화 현상의 특징은 경기순환으로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선진 외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산업간, 계층간 양극화가 지속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후에는 더욱 심화·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동안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복지제정 지출을 꾸준히 확대하여 왔으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해소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악화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워지며, 내수가 침체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그리하여 양극화의 완화·해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5년부터 대통령 신년사, 국정연설 등을 통하여 양극화 문제가 공론화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국정의 중심 화두로 등장하였고, 양극화의 완화대책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자문특별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서 2006년도의 핵심 정책과제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양극화 관련 최근 논의들은 경제활동이나 소득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양극화 관련 선행 연구들은 전국 단위나 산업부문 또는 도·농간 비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이동필 외, 2004), 아직까지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어떤 부문에서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별로 없는 실정이다. 농업·농촌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도

농가 중심으로 경제적 측면(경지규모, 소득 등)에서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양극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

농촌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양극화 문제는 경기순환이나 경제정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사회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론은 농촌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접근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사회적 배제론은 빈곤의 문제를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 사회, 공간적 요인까지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사회적 배제론에 근거하여 소득뿐만 아니라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여 농촌사회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한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통계자료의 분석,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양극화 관련 이론,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사회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정책 사례 등과 관련한 기초 자료 및 문헌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원자료, 농림부의 ‘농가경제조사’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통계조사’의 근무여건 만족도 조사 통계(1998년, 2002년), 교육수준 조사 통계(1997년, 2001년, 2005년), 교육비 조사통계(1996년, 2000년, 2004년), 가정생활만족도 조사통계(1998년, 2002년), 그리고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통계(1998년~2004년)의 경우 Esteban-Ray(1999)의 ER지수 공식을 이용하여 양극화 지수를 계산하였다.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외에도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농촌사회의 양극화 정도,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에 대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한 농촌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농촌지역(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 500명에 대하여 면접으로 이루어졌다. 표집은 농촌지역을 인구 증가율, 노인 인구 비율, 대도시와의 근접성 등을 감안하여 관광부문이 성장하고 있는 산간·해안지역(산간·해안지역), 제조업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도시 인접지역(도시 인접지역), 지역발전이 정체된 중산간 농업지역(중산간 농업지역), 평야지대 농업 중심지역(평야 농업 중심지역) 등 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¹ 20세 이상 연령층 인구비례에 따라 지역할당을 실시하고, 각 지점별로 읍·면 및 통·반·리를 순차로 무작위 추출한 후, 최종 표본가구와 표본가구 내 응답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층화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였다.² 설문지 초안 마련, 예비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설문지는 연구진이 마련하되, 현지 면접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였고, 조사는 2006년 9월 11일~9월 26일에 이루어졌다. 응답자 일반 현황은 <표 1>과 같다.

또한 기존 통계자료의 분석 및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농촌주민을 농가 여부, 가족 형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사례(20명)에 대하여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편 양극화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 과정 및 결과 분석 등에 반영하고, 연구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¹ 농촌지역의 특징을 살펴볼 18개 주요 지표를 선정하고 요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6개의 요인(인구주택 관련 지표, 지형 관련 지표, 산업입지 관련 지표, 어메니티 관련 지표, 생활서비스변화 관련 지표, 관광산업 관련 지표)으로 압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18개 변인들의 표준화 점수를 투입변수로 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137개 시·군을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² 권역별 비교를 위해서 4개 권역 각각 125명씩 조사함.

표 1. 응답자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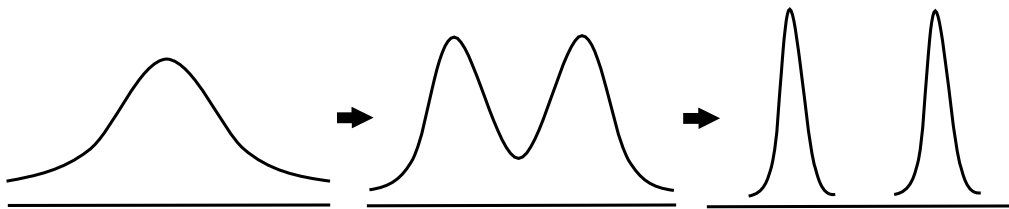
구 분	범 주	빈도	백분비(%)
성 별	남자	248	49.6
	여자	252	50.4
학 력	무학	45	9.0
	초등학교 졸업	113	22.6
	중학교 졸업	71	14.2
	고등학교 졸업	186	37.2
	전문대학 졸업	38	7.6
	대학교 졸업 이상	47	9.4
혼인상태	유배우자	369	73.8
	사별	48	9.6
	별거 또는 이혼	9	1.8
	미혼	74	14.8
가구형태	독신가구	50	10.0
	1세대가구(부부)	139	27.8
	2세대가구(부부+자녀)	229	45.8
	편부모+자녀	22	4.4
	3세대가구	46	9.2
	기타	14	2.8
연령	20대	82	16.4
	30대	82	16.4
	40대	93	18.6
	50대	78	15.6
	60대	136	27.2
	70대 이상	29	5.8
농촌거주기간	9년 이하	80	16.0
	10~19년	63	12.6
	20~29년	109	21.8
	30~39년	65	13.0
	40~49년	62	12.4
	50~59년	42	8.4
	60~69년	61	12.2
	70년 이상	18	3.6
직업	농림어업	139	27.8
	자영업	145	29.0
	사무·관리직	66	13.2
	생산직	28	5.6
	가정주부	59	11.8
	무직	35	7.0
	기타	28	5.6
계		500	100.0

2. 양극화 관련 이론

2.1.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bi-polarization)란 중간 부문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부문간 이동이 더 어려워지면서 집단간 이질성 및 집단 내 동질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전병유 외, 2006)<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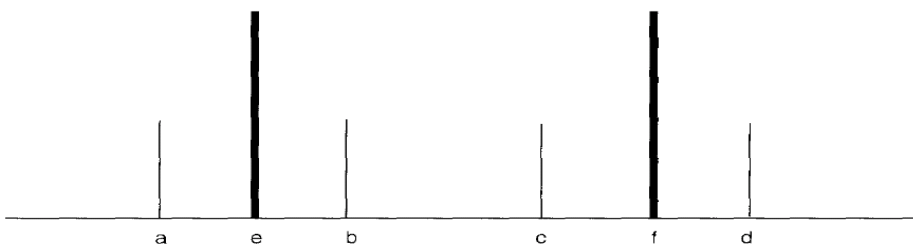
그림 1. 분포의 양극화 과정



양극화는 지니계수, 소득분배율 등과 같은 기존의 불평등 지표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으며 새로운 지표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기존의 불평등 지표들은 전체 평균에 대한 각 계층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계층의 해체나 밀집 정도는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극화가 곧 불평등 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는 악화되었지만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으며, 역으로 양극화 현상은 완화되었지만 불평등은 심화될 수 있다.

<그림 2>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예시되어 있다. <그림 2>에서 a, b, c, d의 네 가지 소득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분포를 가정하자. a와 b 사이의 그리고

그림 2.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예시



주: 가로축은 소득수준을, 세로축은 각 집단에 대한 상대도수를 나타냄.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16(1): 63~80.

c와 d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시행하여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바와 같이 e와 f의 두 수준으로 이루어진 소득분포로 바뀌었다고 가정하면,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었으나 소득재분배 이전과 비교하여 소득재분배 이후에는 소득분포가 보다 집락화되었으며 중산층은 사라지는 양극화가 발생한다.

양극화는 시간에 따른 분포의 변화라는 동태적인 관점에서 파악되며, 상·하 계층 간 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중간층의 감소로 인한 양 집단의 비중과 각 집단의 밀집 정도가 증가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양극화의 정도는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질 때 높아지기도 하지만 집단 간 격차가 불변이어도 각 집단 내의 구성원들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 때도 높아진다.

2.2. 양극화 측정방법

양극화를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수화 방법으로는 ER(Esteban and Ray)지수가 있다. ER 양극화 지수는 기본적으로 특정 변인의 분포가 2개의 집단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어느 한 집단에 속해 있는 특정 개인이 다른 집단에 느끼는 반감의 정도는 동질성함수와 이질성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Esteban과 Ray(1994)는 서로 다른 분포 간 양극화 지수값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직관적인 공리들(axioms)이 만족되어야 하며 이 공리들에 따라 동질성 및 이질성 함수들은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³ 그러나 Esteban과 Ray(1994)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이 2개의 집단으로 이미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그리하여 최근에 Esteban 등(Esteban et al. 1999; Duclos et al. 2004)은 Esteban과 Ray(1994)의 방법을 발전시켜 연속분포를 2개의 극점들로 표시하여 발생하는 근사(approximation)에 의한 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ER 양극화 지수의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확률변수인 y 는 유한 폐구간 $[a, b]$ 에서 밀도함수 f 로 표시되고 y 는 평균(μ)이 1이 되도록 정규화 되었다고 하면, 이 밀도함수 f 는 (식1)과 같은 2개의 극점들로 구성된 집합(ρ)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π_1 은 y_0 과 y_1 구간사이에 놓일 확률, μ_1 은 동일 구간 내에서의 조건부 평균값을 의미하고, π_2 은 y_1 과 y_2 구간사이에 놓일 확률, μ_2 은 동일 구간 내에서의 조건부 평균값을 의미한다.

³ Esteban and Ray(1994), pp.832-833을 참조.

$$(식1) \quad \rho = (y_0, y_1, y_2; \pi_1, \pi_2; \mu_1, \mu_2)$$

Esteban과 Ray(1994)의 제안에 따른 양극화 지수⁴는 (식2)와 같이 정의된다. 여기서 α 는 양극화 지수의 민감도를 나타내는 모수로서 $0 \leq \alpha \leq 1.6$ 을 만족해야 한다.

$$(식2) \quad ER(\alpha, \rho) = \pi^\alpha + (1 - \pi)^\alpha - L(\pi)$$

연속밀도함수를 두 개의 극점으로 표시하여 발생하는 오차를 완화하기 위해 Esteban 등(1999) 및 Duclos 등(2004)은 ER지수에 근사한 양극화의 과장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식3)과 같은 개선된 양극화 지수를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epsilon(f, \rho)$ 는 근사에 의한 오차를, β 는 단순 ER지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사오차에 두게 되는 가중치를 나타내는 모수값이다.

$$(식3) \quad P(f, \alpha, \beta) = ER(\alpha, \rho) - \beta \epsilon(f, \rho)$$

연속변수의 분포를 극값으로 표시하여 발생하는 오차는 (식4)와 같이 표시된다. 여기서 $G(\cdot)$ 는 괄호안의 분포에 해당하는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식4) \quad \epsilon(f, \rho) = G(\pi) - (\pi - L(\pi))$$

따라서 개선된 ER양극화 지수는 (식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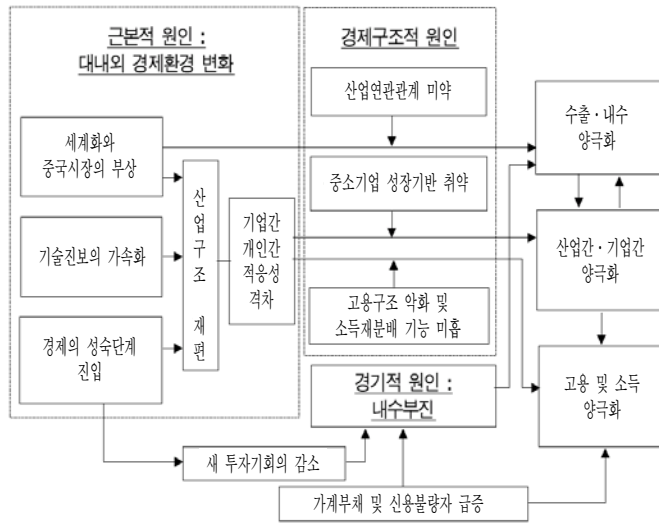
$$(식5) \quad P(f; \alpha, \beta, y) = (\pi^\alpha + (1 - \pi)^\alpha)(\pi - L(\pi)) - \beta[G - (\pi - L(\pi))]$$

2.3. 양극화의 원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은 경제적 접근이다. 윤진호(2006)는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외부적 요인, 구조적 요인, 주체적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고 보고 있으며, 열린정책연구원(2006)도 양극화의 원인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 산업·고용구조의 취약성, 경기적 원인(내수 부진)을 강조한다<그림 3>.

4 이들이 제안하고 있는 다극화 지수는 $ER(\alpha, \rho)^N = \sum_i \sum_j \pi_i^{1+\alpha} \pi_j |\mu_i - \mu_j|$ 로 정의된다.

그림 3. 양극화의 원인



반면, 양극화의 원인과 관련된 다차원적 접근으로는 ‘사회적 배제론’을 들 수 있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기는 하지만(Pierson, 2001; Alvey, 2000), 일반적으로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농촌사회 양극화 연구에서 ‘사회적 배제론’의 개념적·실천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정책분야 사회양극화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층 혹은 빈곤층이 주어진 계층구조 내에서 상향이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경제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회경제현상으로서의 빈곤문제를 다차원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개념적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적 배제론’은 그러한 전략 중의 하나로서 의의를 가진다(Atkinson, 1998; 국가인권위원회, 2003). 즉 빈곤의 원인을 빈곤계층 내부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찾음으로써 빈곤의 발생 및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 즉 공공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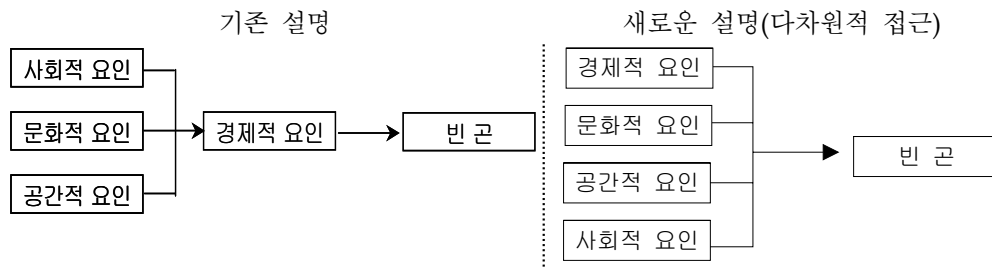
한편, 사회적 배제론은 빈곤 및 빈곤화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시각에 대한 반성으로서 의미도 있다. 경제적 차원에서 총량적 자료를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빈곤층의 전반적인 규모와 추이를 살펴보는 기존의 빈곤 연구는 빈곤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도모하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접근이 종종 빈곤의 형성·재생산 과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작업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게 사실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 중에는 빈곤 문제를 경제적 차원의 문제로 지나치게 단순화해 빈곤 현상의 다차원적이

고 복합적인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빈곤 문제에는 심리적 고립감, 사회문화적 소외, 정치적 배제, 공간적 격리 등과 같은 상이한 차원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사회현실이다. 요컨대, 빈곤 현상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새롭게 하고 빈곤 문제에 대한 사회경제정책적 개입을 더욱 다양화해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배제론의 궁극적 목적이다. 즉 사회적 배제론에서는 빈곤 현상의 동태적 측면, 관계적 측면, 다차원성 등이 강조된다(강신욱 외, 2005: 62-66).

기존의 빈곤연구는 사회적·문화적·공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빈곤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으로 수렴되어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빈곤의 형성 및 재생산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경제결정론적 관점으로 기울기 쉽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경제적 요인이 빈곤 현상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에는 틀림없지만,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혹은 이것과 영향을 주고받는 비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림 4>는 빈곤에 대한 기존의 설명방식과 새로운 설명방식인 사회적 배제론 관점에서의 다차원적 접근을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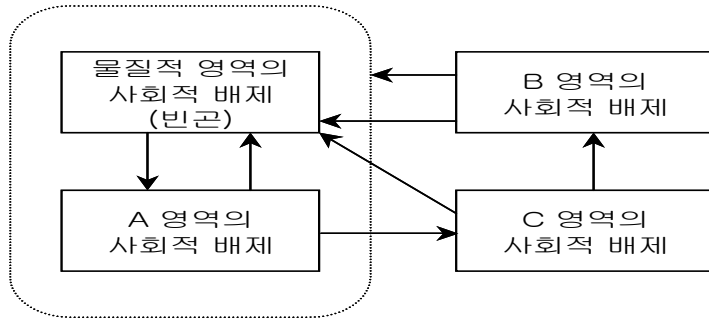
그림 4. 빈곤에 대한 설명방식의 비교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경험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 즉 사회적 배제 현상이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주요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Vleminckx와 Berghman(2001)은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네 가지 제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제도가 실패할 때 사회적 배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① 시민참여(혹은 시민적 통합, civic integration)를 촉진해야 할 민주주의적·법적 제도의 실패, ② 직업 및 소득 활동(경제적 통합)을 촉진해야 할 노동시장의 실패, ③ 사회적 통합을 촉진해야 할 국가복지제도의 실패, ④ 개인간 통합(inter-personal)을 촉진해야 할 가족 및 지역공동체의 실패 등으로 구분하였다. Pierson(2001)은 더욱 직접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구성요소를 언급하면서 빈곤과 저소득, 노동시장 접근의 어려움, 사회적 지원 및 관계망의 결핍,

지역사회 혹은 근린 효과, 공공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다차원적·동태적 빈곤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상과 같은 사회적 배제 영역 간의 역동적 관계성에 대한 고찰에서 가능하다<그림 5>.

그림 5. 빈곤 현상에 대한 사회적 배제론의 설명방식(예시)



3. 농촌사회의 양극화 분석

기존 통계자료(‘사회통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및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배제론에 근거하여 농촌사회 양극화 실태는 소득, 고용, 교육, 건강, 주거, 사회 참여 등 6개 부문별로 먼저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양극화 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3.1. 소득부문

소득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8년 및 2002년 소득만족도 조사통계, ‘농가경제조사’의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농가소득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의 연간 총소득, 소득 양극화에 대한 인식, 소득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소득만족도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은 ’98년 10.2%에서 ’02년 14.0% 증가하고,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은 ’98년 42.2%에서 ’02년 36.4% 감소하고,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 비

율은 '98년 0.3%에서 '02년 1.5%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도시도 농촌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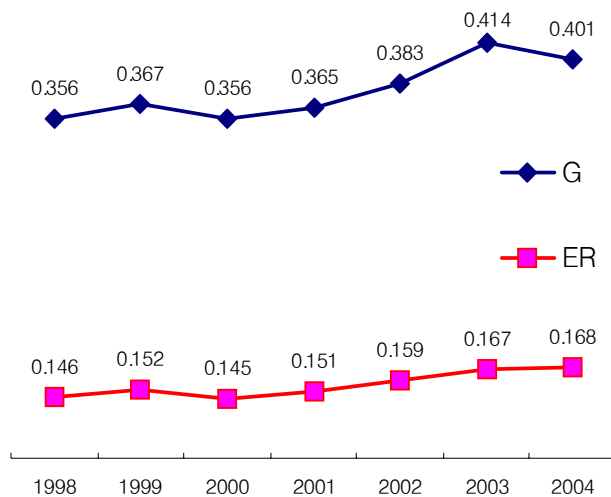
표 2. 소득만족도의 변화

단위: %

년도	지역	소득 만족도					전체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만족	
1998	도시	11.3	37.2	41.5	9.5	0.4	100.0
	농촌	10.2	37.0	42.2	10.2	0.3	100.0
	전체	11.0	37.2	41.7	9.7	0.4	100.0
2002	도시	13.8	35.1	39.3	10.6	1.3	100.0
	농촌	14.0	37.0	36.4	11.2	1.5	100.0
	전체	13.8	35.5	38.6	10.7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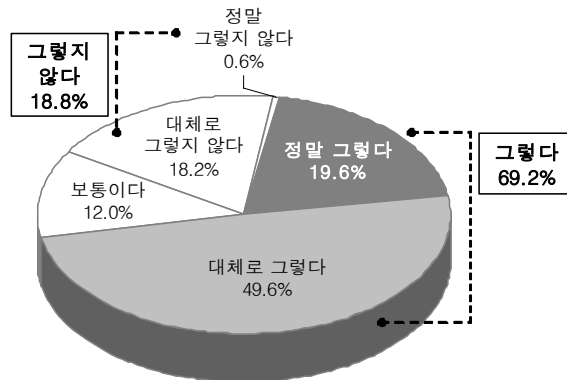
‘농가경제조사’의 농가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1998년 0.356에서 2004년 0.401로 증가하여 농가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 주고, 양극화지수(ER)는 1998년 0.146에서 2004년 0.168로 증가하여 소득 양극화 또한 심화되었음을 보여 준다<그림 6>.

그림 6. 농가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지수 변화(1998~2004)



5 ER지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면,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한 것임.

그림 7.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69.2%,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8.8%로 나타났다<그림 7>. 권역별로 ‘그렇다’(‘그렇다’+ ‘정말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도시 인접지역(84.8%), 평야농업중심지역(69.6%), 중·산간 농업지역(62.4%), 산간·해안지역(60.0%) 순으로 높았다. 농촌사회 소득 양극화의 주원인을 조사한 결과, ‘돈 벌이 기회 부족’ 38.9%, ‘대농 위주의 농업정책’ 15.5%,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11.6%, ‘미흡한 사회보장제도’ 10.8% 등의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한편 소득 양극화와 관련하여 주민 심층 면접조사 결과, 고소득층 가구는 과수·채소·가축·특수작물 등을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젊은 농가이거나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 부동산이 많은 사람, 도시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귀농한 연금생활자 등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은 주로 노령 독신가구인 경우가 많고,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어도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들이 특히 가난하고, 농촌마을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독신 여성노인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망 후에 경제적 사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고용부문

고용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7년, 2001년, 2005년 취업상태 조사통계, 1998년, 2002년의 근무여건 만족도 조사통계를 분석하였

고, 주민 설문조사의 고용 양극화에 대한 인식, 고용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취업상태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 농촌에 관계없이 임시직 및 일용직이 증가하고 상용직이 감소하였으며, 실업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여건 만족도 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98년 0.0997에서 '02년 0.1140으로 증가하고, 양극화(ER)지수는 '98년 0.0371에서 '02년 0.0428로 증가하였다<표 3>.

표 3. 근무여건 만족도의 변화(1998~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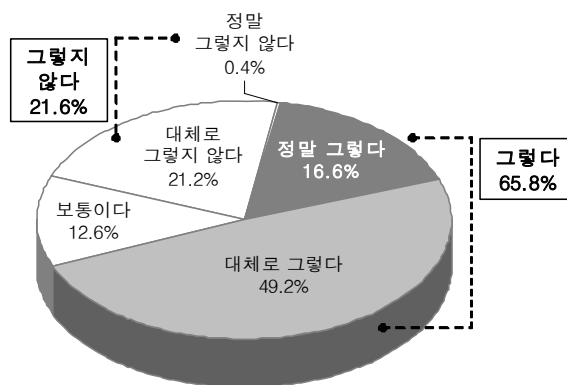
년도	지역	μ	π	$L(\pi)$	중위집단 비율(%)			G	ER ($\alpha = \beta = 1$)
					80-120%	75-125%	66.7-133.3%		
1998	도시	26.777	0.5123	0.4404	73.1	83.3	91.2	0.1039	0.0399
	농촌	27.141	0.5569	0.4885	74.5	85.7	92.5	0.0997	0.0371
	전체	26.831	0.5072	0.4367	73.2	83.5	91.3	0.1026	0.0384
2002	도시	26.659	0.4931	0.4156	71.7	80.3	91.2	0.1138	0.0412
	농촌	26.411	0.5107	0.4323	71.8	78.2	88.7	0.1140	0.0428
	전체	26.621	0.4958	0.4181	71.6	80.3	91.4	0.1139	0.0415

9개 항목(하는 일, 인사관리, 임금, 복리후생, 직장 장래성, 근무환경, 인간관계, 성희롱 방지 노력,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 총점(이론적 범위:9-45, 이론적 평균:27)

π : 평균값까지 농일 확률, $L(\pi)$: π 의 로렌즈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Esteban-Ray 양극화 지수 $ER = \{\pi_{\mu}^{\alpha} + (1 - \pi_{\mu})^{\alpha}\}(\pi_{\mu} - L(\pi_{\mu})) - \beta(G - \pi_{\mu} + L(\pi_{\mu}))$

그림 8.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 인식 정도



농촌사회 고용문제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농촌사회가 취업이나 근로조건(작업환경)과 같은 고용문제에 있어서 조건이 아주 좋은 계층(도시의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사람, 공무원, 기계화된 대농 등)과 그렇지 못한 계층(농업 노동자, 영세 소농, 무직자 등)으로 양극화되어 있다는 응답비율이 65.8%(‘정말 그렇다’ 16.6%, ‘대체로 그렇다’ 49.2%)로 나타났다<그림 8>. 권역별로는 ‘양극화되어 있다’는 의견은 ‘도시인접지역’에서 80.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간·해안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 중심지역’에서 각각 60.8%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의 주 원인에 대해, ‘농촌에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함’ 59.9%, ‘교육수준 차이’ 16.3% 등으로 인식하였다. 농촌사회 고용문제 양극화와 관련하여 심층 면접조사 결과 농촌주민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크고, 농한기 일자리 창출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 노인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3.3. 교육부문

교육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7년, 2001년, 2005년 교육수준 조사 통계, 1996년, 2000년, 2004년 교육비 조사 통계 및 평생교육 참여 조사 통계 등을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교육 양극화(교육수준, 사교육비,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자료 중 ‘사회통계조사’의 교육수준⁶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97년 0.4134에서 '05년 0.3965로 감소하고, 양극화(ER)지수는 '97년 0.200에서 '05년 0.208로 증가하였다.

사회통계조사의 사교육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지니계수는 '96년 0.5676에서 '00년 0.6699로 증가했다가, '04년 0.5880으로 감소하고, 양극화(ER)지수는 '96년 0.2522에서 '00년 0.3548로 증가했다가, '04년 0.2926으로 감소하였다<표 4>.

⁶ 교육 수준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분석하였음. 0=무학, 1=초교재학/중퇴, 2=초졸, 3=중교재학/중퇴, 4=중졸, 5=고교재학/중퇴, 6=고졸, 7=전문대재학/중퇴, 8=전문대졸, 9= 대학재학/중퇴, 10= 대학졸, 11=대학원재학/중퇴, 12=대학원졸

표 4. 사교육비의 변화(1996~2004)

년도	지역	μ (천원)	π	$L(\pi)$	중위집단 비율(%)			G	ER ($\alpha = \beta = 1$)
					80- 120%	75- 125%	66.7- 133.3%		
1996	도시	870.42	0.6180	0.2525	15.8	20.1	25.4	0.5116	0.2193
	농촌	449.03	0.6103	0.2004	13.9	16.5	19.6	0.5676	0.2522
	전체	782.27	0.6302	0.2481	15.5	19.9	25.0	0.5326	0.2316
2000	도시	784.96	0.6372	0.1773	7.9	13.8	15.3	0.6165	0.3033
	농촌	457.38	0.6486	0.1362	4.4	6.7	7.2	0.6699	0.3548
	전체	721.64	0.6524	0.1803	6.9	13.1	13.9	0.6305	0.3137
2004	도시	2,783.27	0.6067	0.1952	9.9	15.1	18.0	0.5586	0.2643
	농촌	1,820.18	0.6184	0.1781	9.4	12.7	15.1	0.5880	0.2926
	전체	2,596.15	0.6157	0.1971	11.0	12.9	15.2	0.5680	0.2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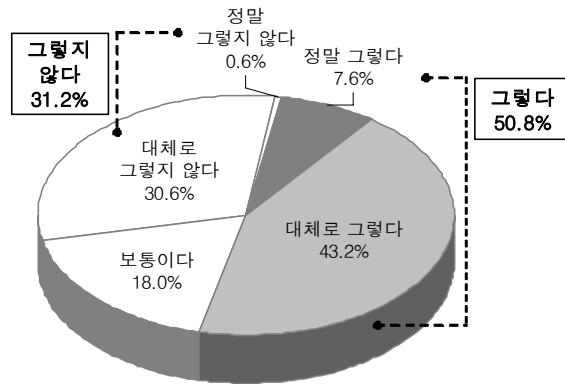
π : 평균값까지 놓일 확률, $L(\pi)$: π 의 로렌즈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 Esteban-Ray양극화 지수

한편, 직장연수, 학원수강, 교양강좌, 직업훈련 등의 형태의 평생학습 참여 정도에 대한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평생학습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96년 11.8%에서 '04년 17.5%로 증가하였다.

농촌사회 학력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0.8%,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1.2%로 나타났다<그림 9>.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72.0%, 평야 농업 중심지역 45.6%, 산간·해안지역 43.2%, 중·산간 농업지역 42.4%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사회의 사교육기회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3.6%,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72.0%, 산간·해안지역 53.6%, 중·산간 농업지역 45.6%, 평야 농업 중심지역 43.2%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사교육 양극화의 주원인으로는 농촌주민 간 소득격차 확대' 55.0%, '사교육기관의 부족' 22.1%, '학부모의 관심정도의 차이' 15.0% 등을 지적하였다.

한편 농촌사회의 사회교육기회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7.4%,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6.8%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64.0%), 산간·해안지역(56.0%), 평야 농업 중심지역 (36.0%), 중·산간 농업지역(33.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사회교육기회 양극화의 주원인으로는 '농촌주민 간의 소득격차 확대', '관련 정보의 부족'등을 지적하였다.

그림 9. 농촌사회 교육 수준(학력)의 양극화 인식 정도



한편, 교육 양극화와 관련하여 심층 면접조사 결과 여성노인은 학력이 가장 낮으며, 문맹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글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고, 농촌학교일수록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복식수업교재의 개발보다는 복식 수업 방식에 대한 교사교육이 더욱 시급하며, 조·손 가정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은 농촌학교의 경우 학생 모듬 형성과 부모 참여 프로그램의 실시가 어려워 농촌 실정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건강부문

건강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9년, 2003년 주관적 건강평가 조사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건강수준 양극화에 대한 인식, 건강수준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자료 중에 사회통계조사의 주관적 건강평가 조사통계를 분석한 결과 ‘매우 건강하지 못함’은 ’99년 3.8%에서 ’03년 5.6%로 증가하였고, ‘매우 건강함’은 ’99년 5.8%에서 ’03년 7.1%로 증가하였다<표 5>.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6.8%,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6.0%로 나타났다<그림 10>.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67.2%), 평야 농업 중심지역(41.6%), 산간·해안지역 (40.0%), 중·산간 농업지역(38.4%)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건강수준 양극화의 주 원인에 대해서는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51.3%,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인력' 14.4%, '부실한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 10.9%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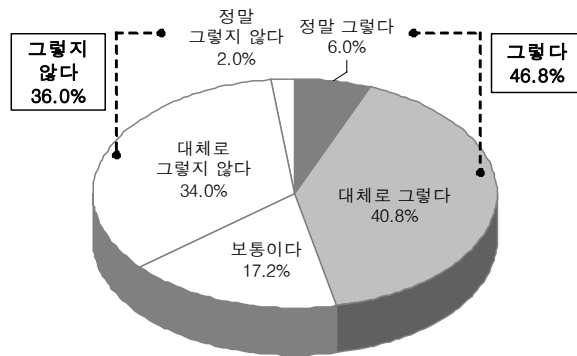
한편,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야간 및 주말은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어 문제가 많고, 노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 취약계층은 순회 진료나 교통편 제공 등이 특히 중요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노인수발 보험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시설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종합건강검진이 내실 있게 실시되고 치료와 직접 연계되어야 함이 조사되었다.

표 5. 주관적 건강평가의 변화(1999~2003)

단위: %

년도	지역	매우 건강하지 못함	건강하지 못한 편	보통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함	전체
1999	도시	2.6	15.9	38.9	36.4	6.2	100.0
	농촌	3.8	22.3	32.1	36.0	5.8	100.0
	전체	2.9	17.4	37.3	36.3	6.1	100.0
2003	도시	2.5	14.2	40.9	35.3	7.1	100.0
	농촌	5.6	22.1	32.8	32.4	7.1	100.0
	전체	3.2	16.0	39.1	34.6	7.1	100.0

그림 10. 농촌사회 건강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3.5. 주거부문

주거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7년, 2001년, 2004년 주택만족도 조사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주거 양극화에 대한 인식, 주거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자료 중 ‘사회통계조사’의 주택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불만’은 ’97년 6.6%에서 ’04년 7.8%로 증가하고, ‘보통’은 ’97년 34.5%에서 ’04년 29.8%로 감소하고, ‘매우 만족’은 ’97년 10.9%에서 ’04년 16.5%로 증가하였다<표 6>. 한편 거주지역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매우 불만’은 ’97년 2.7%에서 ’04년 5.4%로 증가하고, ‘보통’은 ’97년 41.3%에서 ’04년 39.8%로 감소하고, ‘매우 만족’은 ’97년 12.2%에서 ’00년 16.5%로 증가했다가, ’04년 9.7%로 다시 감소하였다.

표 6. 주택만족도의 변화(1997~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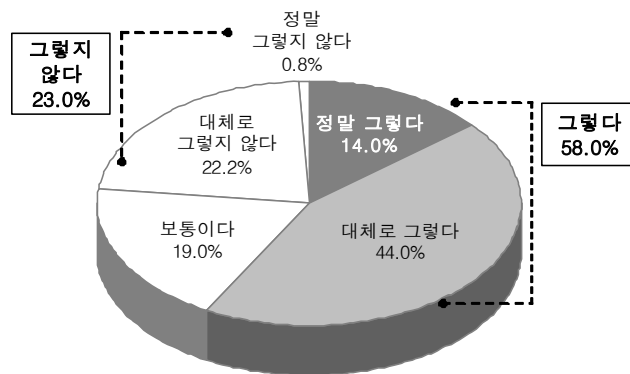
단위: %

년도	지역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약간만족	매우만족	전체
1997	도시	7.2	34.2	37.5	15.4	5.7	100.0
	농촌	6.6	29.0	34.5	19.0	10.9	100.0
	전체	7.0	32.9	36.8	16.3	7.0	100.0
2001	도시	8.0	27.4	39.2	17.7	7.7	100.0
	농촌	7.4	21.2	34.1	22.1	15.2	100.0
	전체	7.9	25.9	38.0	18.8	9.5	100.0
2004	도시	8.1	28.9	33.8	20.0	9.2	100.0
	농촌	7.8	23.2	29.8	22.7	16.5	100.0
	전체	8.1	27.5	32.8	20.7	10.9	100.0

농촌사회 주거수준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8.0%,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23.0%로 나타났다<그림 11>.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88.0%, 평야 농업 중심지역 50.4%, 중·산간 농업지역 48.0%, 산간·해안지역 45.6%로 나타났다. 농촌사회 주거수준 양극화의 주원인에 대해서는 ‘가구별 경제능력 차이’ 68.1%, ‘노후주택 개보수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13.2% 등을 지적하고 있었다.

한편, 심층 면접조사 결과, 노인부부 또는 노인 혼자 사는 경우일수록 주택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자녀나 가까운 친척이 없는 독거노인의 주택은 대체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마을에서 아주 좋은 집은 주로 외지

그림 11. 농촌사회 주거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인의 주말 별장이거나 도시의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농촌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난방을 기름보일러 대신에 화목이나 연탄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로당은 겨울철의 공동난방으로 인해서 개별 가구의 난방비를 크게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의 주택 구조를 노인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개조하길 바라는 노인이 많았다.

3.6. 사회참여부문

사회참여부문 양극화와 관련하여 기존 통계자료로 ‘사회통계조사’의 1999년, 2003년 종교활동 및 사회단체·자원봉사 참여, 민원서비스 이용 조사 통계, 1998년, 2002년 가정생활만족도 조사 통계를 분석하였고, 주민 설문조사의 사회참여 양극화에 대한 인식, 사회참여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기존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교 활동은 ‘있음’이 ‘99년 50.0%에서 ‘03년 54.3%로 증가, 사회단체활동 참여경험은 ‘있음’이 ‘99년 20.4%에서 ‘03년 46.0%로 증가,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은 ‘있음’이 ‘99년 15.0%에서 ‘03년 17.7%로 증가, 민원서비스 이용경험은 ‘있음’이 ‘99년 75.8%에서 ‘03년 54.1%로 감소하였다.

한편 ‘사회통계조사’의 가정생활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중위집단의 비중은 감소하였고, 지니계수는 ‘98년 0.10264에서 ‘02년 0.11206으로 증가했으며, 양극화(ER)지수는 ‘98년 0.0458에서 ‘02년 0.0553으로 증가하였다<표 7>.

표 7. 가정생활만족도의 변화(1998~2002)

년도	지역	μ	π	$L(\pi)$	중위집단 비율(%)			G	ER ($\alpha = \beta = 1$)
					80-120%	75-125%	66.7-133.3%		
1998	도시	18.6216	0.5151	0.4345	67.2	77.0	90.1	0.10950	0.0517
	농촌	18.7309	0.4957	0.4215	63.2	80.8	98.2	0.10264	0.0458
	전체	18.6422	0.5115	0.4321	67.9	77.5	90.2	0.10826	0.0505
2002	도시	19.2459	0.5316	0.4449	52.3	71.7	97.9	0.11468	0.0587
	농촌	19.3265	0.5299	0.4462	55.7	72.6	98.2	0.11206	0.0553
	전체	19.2605	0.5305	0.4451	52.9	71.8	97.9	0.11422	0.0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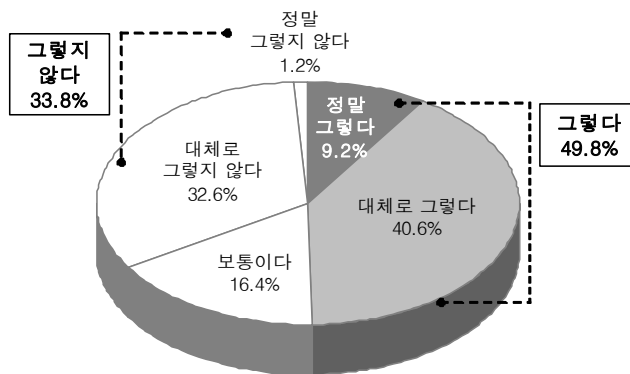
5개 항목(부모관계, 배우자부모관계, 자녀관계, 배우자관계, 형제·자매관계)에 대한 만족도 총점 (이론적 범위: 5-25, 이론적 평균:15)

π : 평균값까지 놓일 확률, $L(\pi)$: π 의 로렌츠 함수값, μ : 전체 평균, G : 지니(Gini)계수

ER: Esteban-Ray 양극화 지수

농촌사회 사회 참여(친목활동, 사회단체 참여, 이웃·친척과의 교류 등)수준의 양극화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49.8%,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33.8%로 나타났다<그림 12>.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72.0%, 산간·해안지역 52.0%, 중·산간 농업지역 44.8%, 평야 농업 중심지역 30.4% 이었다. 농촌사회 사회참여수준 양극화의 주원인으로는 ‘소득 격차’ 58.9%, ‘주거나 지리적 여건의 차이’ 17.8% 등을 지적하였다.

그림 12. 농촌사회 사회 참여 수준의 양극화 인식 정도



한편, 심층 면접조사결과, 마을 또는 지역의 지도계층일수록 사회참여가 활발하고, 지역사회 또는 마을공동체가 복지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고, 정보부족으로 사회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력이 낮은 계층은 사회참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참여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7. 양극화 전반

양극화 전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사회통계조사’의 계층의식 및 계층이동 가능성(1999년, 2003년)에 대한 조사통계를 분석하였다. 자신이 속한 계층을 중간층(중상·중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99년 56.2%에서 '03년 49.7%로 감소한 반면, ‘상상’은 '99년 0.2%에서 '03년 0.4%로 증가하였고, ‘하하’는 '99년 14.2%에서 '03년 21.2%로 증가하였다<표 8>. 한편 세대내 계층이동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99년 6.8%에서 '03년 8.9%로 증가했고, ‘보통이다’는 '99년 44.8%에서 '03년 31.7%로 감소했으며, ‘매우 높다’는 '99년 3.7%에서 '03년 2.5%로 감소하였다. 또한 세대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있어서는 ‘낮다’는 '99년 11.2%에서 '03년 22.0%로 증가했고, ‘보통이다’는 '99년 40.0%에서 '03년 19.3%로 감소했으며, ‘높다’(매우 높다+비교적 높다)는 '99년 48.9%에서 '03년 58.6%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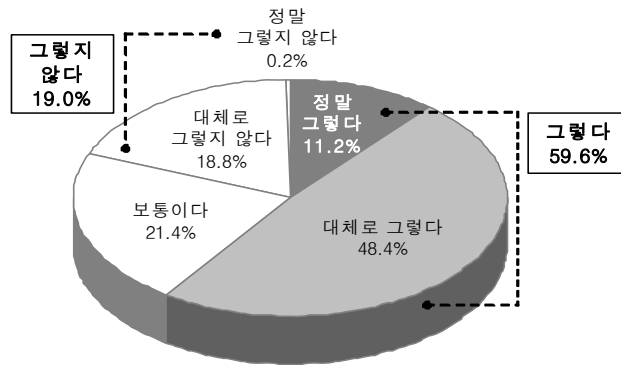
표 8. 계층의식의 변화(1999~2003)

단위: %

년도	지역	계층의식						전체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1999	도시	0.2	0.9	17.7	40.1	26.9	14.3	100.0
	농촌	0.2	0.9	18.5	37.7	28.5	14.2	100.0
	전체	0.2	0.9	17.8	39.5	27.2	14.3	100.0
2003	도시	0.3	1.1	18.4	37.6	25.3	17.4	100.0
	농촌	0.4	0.7	16.6	33.1	28.1	21.2	100.0
	전체	0.3	1.0	18.0	36.5	26.0	18.3	100.0

농촌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비율이 59.6%, ‘그렇지 않다’는 응답비율은 19.0%로 나타났다<그림 13>. 권역별로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도시 인접지역 83.2%, 산간·해안지역 57.6%, 평야 농업 중심지역 52.8%, 중·산간 농업지역 44.8%로 나타났다.

그림 13. 농촌사회 전반적인 양극화 인식 정도



한편, 양극화 6개 부문간의 상호연관 정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양극화 되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소득(69.2%), 고용(65.8%), 주거(58.0%), 사교육(53.6%), 학력수준(50.8%), 사회참여(49.8%), 사회교육(47.4%), 건강(46.8%) 순이었고, Pearson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양극화와 양극화의 각 부문간에는 상호연관성이 고르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양극화 부문간의 상관계수

부 문	양극화 (전반)	소득	고용	교 육			건강	주거
				학력수준	사교육	사회교육		
소득	.426	1.000						
고용	.410	.376	1.000					
교육	학력수준	.448	.381	.452	1.000			
	사교육	.494	.398	.493	.604	1.000		
	사회교육	.429	.374	.432	.444	.599	1.000	
건강	.471	.267	.367	.453	.533	.430	1.000	
주거	.489	.296	.375	.375	.392	.336	.426	1.000
사회참여	.489	.338	.320	.338	.378	.403	.369	.343

* 모든 상관계수가 P< 0.01

4.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적 배제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소득, 고용과 같은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관점 등을 포괄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농촌사회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기존통계자료와 농촌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토대로 농촌사회 양극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농촌사회는 현재 양극화되어 있다. 양극화 부문별 기존통계자료 분석 및 농촌주민 양극화 인식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계층의식, 계층이동 가능성, 양극화 전반에 대한 농촌주민 인식조사를 통해 농촌사회가 현재 양극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농촌사회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문은 다소 예외였지만, 양극화 부문별 그리고 양극화 전반에 대한 최근 10여 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 농촌사회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농촌 권역별로도 양극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농촌주민 대상 양극화 인식 조사 결과 사회참여를 제외한 양극화 전반에서 도시인접 농촌이 다른 지역보다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하였다. 도시인접 농촌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질성이 다른 권역에 비해서 더 높고, 도시로의 빈번한 왕래 등으로 인해서 양극화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농촌사회 양극화는 주로 소득, 고용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도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양극화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농촌주민들은 주로 돈벌이 기회 부족, 경제적 능력 차이, 일자리 부족 등을 들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양극화 부문별 농촌주민들이 인식 간에는 모두 고르게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부에 와 닿는 농촌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서는 소득, 고용이 설명하는 바가 크지만,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와 같은 사회적 요인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강신욱 외. 2005. 「사회적 배제의 지표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정. 2006. “농가 소득의 양극화 시대와 정책 과제.” 농정연구센터 세미나발표논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05.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국가인권위원회. 2003.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연구」.
- 금융경제연구원. 2004.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 과제」. 한국은행.
- 김용택 외. 2004. 「농가소득보전 및 소득안전망 확립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2005. “농업부문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 과제.”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pp. 125-147.
-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김홍중 외. 2005. 「전 세계적 양극화 추세와 해외 주요국의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과제와 정책」. 지방순회토론회 자료집.
- 민승규 외. 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호. 삼성경제연구소.
- 박대식 외. 2001.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병현, 최선미. 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5: 185-219.
- 박민선. 1993. “1980년대 농민계층분화의 양상과 그 성격.” 「농촌사회」 3: 39-73.
- 박시현 외. 2005.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도·농 소득격차 완화방안(2/3차년도): 경제활동기회의 농촌지역 간 차이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준기, 황의식, 문한필. 2005. 「저소득농가의 농가경제 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보건복지부. 2006.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6」.
- 신동균. 2006. “소득분포의 양극화: 개념과 실태.” 「노동리뷰」 16(1): 63-80.
- 심창학. 200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사회적 배제 극복정책의 국가별 비교.” 「유럽연구」 18: 209-238.
- 열린정책연구원. 2005.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
- 우천식. 2005. “경제구조변화와 양극화.” 「산업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 pp. 20-47.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공동 WORKSHOP 결과보고서 ⑦.
- 윤성호. 2005. “한국노동빈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의 관련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49-176.
- 윤수중. 2001. “농촌 내부의 경제력 집중에 의한 농민층분해와 농민간 갈등.” 「농촌사회」 11(2): 67-95.
- 이동필 외. 2004. 「도농간 소득 및 발전 격차의 실태와 원인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병유, 김혜원, 신동균. 2006.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정책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2030」.
- 황의식, 문한필. 2003.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lvey, S. 2000. “Social Exclusion and Public Sector Housing Policy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20(5-6).
- Atkinson, A. B. 1998. “Social Exclusion, Poverty and Unemployment.” in Atkinson, A. B. and Hills, J. (eds.). *Exclusion, Employment and Opportunity*. pp. 1-20.
- Berman, Y. and D. Phillips. 2000.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and Social Exclusion at National

- and Community Level.”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 Deutsch, M. 1971. “Conflict & its Revolution.” in C. G. Smith. (ed). *Conflict Revolution: Contribution of the Behavioral Science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Duclos, Jean-Yves, Joan Esteban, and Debraj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72(6): 1737-1772.
- Esteban, Joan. 1999. “Conflict and Distribu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87: 379-415.
- Esteban, Joan and Debraj,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sation.” *Econometrica* 62(4): 819-851.
- Pierson, J.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Routledge.
- Vleminckx, K. and J. Berghman. 2001. “Social Exclusion and the Welfare State: An Overview of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ward Elgar.

원고 접수일: 2007년 2월 14일
원고 심사일: 2007년 3월 15일
심사 완료일: 2007년 6월 11일